

# 사설

## 여의도문화원에 거는 기대

여의도는 국회와 각 방송사가 있고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한마디로 정치, 언론, 금융 등 여론 주도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1일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여의도에 불교문화원을 개설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그 활동이 기대되는 바가 크다.

120평의 넓은 공간에 법당, 회의실, 차담실 등이 마련되어 법회를 항상 열고 신형단체들의 회의공간으로 사용하며 나아가 전통문화를 감수하는 장소로도 활용될 것이라 한다.

이번에 개설되는 여의도 불교문화원은 여타의 포교원과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여의도라는 장소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처음으로 종단적 차원에서 개설하는 도심포교원이란 점이다. 국회 정각회, KBS불자회, 금융단불자회, 연인연불자회 등 많은 신형단체들이 있지만 활동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었던 터라 아쉬운 바가 많았는데 다행히 이번 불교문화원의 개원으로 이들 직장·직능불자회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차 여의도 불교문화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할 것이라 하니 재가불자들의 참여의식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또한 이제까지 비공개로 사찰을 운영하던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사찰운영방식을 보여줄 것이 예상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종단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인 포교전략으로 개설하는 최초의 도심포교원이란 점이다. 종단의 직접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서 운영하는 최초의 개척포교원이자 종단 포교방향을 시험하는 장이란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모으게 된다.

사실 종단은 이제까지 포교를 3대 사업의 하나로 말해 왔지만 신도시가 개발될 때마다 종단 차원에서 종교부

지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기존의 도심포교당들은 거의가 종단의 지원은 전혀 없이 오직 개인 원력으로 개설되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규모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 영세성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 많은 문제점도 뒤따르게 되었다.

예컨대 경제적 뒷받침이 안되어 중도에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였고, 개인적 원력에 의하 보니 법당의 주불도 통일되지 않았으며, 의식을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혀 통일성을 보일 수가 없었다. 심지어 불교포교당이란 이름을 내걸기는 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의도나 사이버 행위를 일삼는 곳도 없지 않았다.

포교는 정법을 확산할 때 포교일 수 있는 것이지만 무조건 사람만 많이 끌어들이고 포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도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될 때는 불교를 빙자한 신행위를 하는 것일뿐 불교의 포교는 결코 아닌 것이다.

개인 원력으로 출발한 기존의 도심포교당들은 일정단계까지 발전하다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예가 많았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이번 종단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발하는 여의도 불교문화원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는 정세상태에 있는 타 포교당들에게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단차원에서 최초로 개설된 여의도 불교문화원의 성공 여부는 이 땅의 전체 불교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애로와 난관이 있더라도 중지를 모야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전문포교사 82개팀 활동

## 직능·지역별 1017명 참여... '현장 포교' 극대화 조계종 포교사단 11월 중앙운영위 발족

조계종 포교사들이 자치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분야별 포교팀과 운영위원회를 결성해 활발한 팀별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문 포교역량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포교사단(총재 정령·포교원장)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동안 서울·경기, 부산·경남지역 등 전국 5개 단위지역 포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 △군, 경찰, 교도소 △장의봉사, 복지시설, 자원봉사, 상담 △사찰안내, 신형단체, 직장포교 등 4개분야로 나누어 4차에 걸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1017명으로 조직된 14개 분야 82개 전문포교팀을 구성, 현장 위주의 팀별 포교에 나서고 있다.

포교팀과 포교사들 취미후 개별적 포교 활동 이외는 보다 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포교사들이 직능·계층별로 전문포교팀을 자발적으로 구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나홀로' 포교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포교로 포교역량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포교사들이 서울경기지역 운영위원회(상임위원장 김기병) 등 6개 지역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별·포교분야별 운영위원회를 구성, 사실상 자치적인 포교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도 예전과는 달랐다.

포교원과의 협의, 포교사단 정관 초안 작업 등을 서둘러 오는 11월 20, 21일 전국 팀장 수련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포교분야는 장의봉사, 군포교, 사찰안내 등의 순. 직장 등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필요한 분야에서 포교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연령은 40~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남·여 비율

은 비슷한 편이다. 아직까지는 포교사(2천여명)의 약 50%가 참여하고 있지만, 포교팀이 부족한 청소년·어린이분야를 보완하는 등 내년까지 2500여명의 포교사를 대상으로 70% 정도인 1700여명을 130여개의 팀으로 조직·운영할 계획이다.

서영부 서울경기지역 상임위원은 "포교사를 필요로 하는 포교현장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 배치하기 위해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포교팀을 구성했다"며 "신심과 능력, 도덕적 품성을 갖춘 포교전문가들이 현장 활동 중심의 포교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1일 여의도불교문화원 개원식

## 세계종교지도자 잇달은 만남

### 10월 로마-11월 암만...고산스님 참석키로

세계의 종교지도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10, 11월 잇따라 열린다. 로마교황청은 10월 24~29일 세계종교지도자회의를 연다. 11월 25~29일 요르단 암만에서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는 7차 총회가 열린다.

로마교황청은 로마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의 대주제를 '제3차 천년의 전야: 다른 종교들간의 협력'으로 정하고, 전체회의와 분임토의를 거쳐 선언문 형식의 문건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들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고산 조계종총무원장과 최창규 성곡관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일치위원회 총무 김성태 신부가 참석한다.

고산스님은 또 11월 25~29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리는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7차 총회에 KCRP회장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WCRP 총회는 70년 창립 총회를 가진 이후 5년마다 열리며, 총회는 각국의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 조계종 행자교육원 8~11기 출신 8만거 성만자 구축계 수지자격

### 기초선원운영위 결정...사이니기초선원 내년 개원

사이 기초선원 임원(교과 1만거 이상 이수자) 중 행자교육원 8~11기 출신에 한해 정규선원에서 8만거 이상 성만한 자에게 구축계 수지 자격이 2년간 한시적으로 부여된다.

조계종 기초선원운영위원회(위원장 무어·축사사주지)는 8월31일 교육원에서 제18차 임시회의를 열고 기초선원이 개원된 97년 이전의 교육행정 공백을 보완하기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또 사미니에

대해서는 8·9기 가운데 올 10월말까지 8만거에게 올해 구축계 수지자격을 주고, 사미니 기초선원이 개원되는 내년부터는 8기에서 16기까지 8만거 이상자에게 수계자격을 주기로 했다.

기초선원운영위는 또 10월부터 10월8일까지 통화사·백담사에서 기초선원 가을교과과거를 결재키로 하고, 기초선원장에 금산사 영진스님을 선출했다. 김재경 기자

## 여의도 불교문화원 개원식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1일 여의도불교문화원 개원식에서 총무원장 고산, 교육원장 일면, 포교원장 정령, 호계원장 원서 스님을 비롯 권익현 국회정각회 고문, 홍순우 금융감독원 감사실장, 장영호 MBC불자회 총무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불발식 및 개원식을 거행했다. (인턴뷰 4면)

여의도불교문화원은 주지로 임명된 종사스님(조계사 상임포교사)이 상주하며, 매일 오전6시부터 밤10시까지 개방한다. 법당 겸 선방과 차담실 회의실 사무실 접견실 등이 갖춰져 있다. 정성운 기자

## 국어사전 불교용어 오류검토 보고서

조계종 총무원(원장 고산스님)은 5종의 국어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불교용어중 오류를 범하고 있는 2백57개의 용어에 대한 수정 대안문을 마련하여 <국어사전의 불교용어 오류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총무원 문화부는 3월부터 국어사전 불교용어 검토작업에 착수해 4월 1차 보고서를 내고, 문제점이 드러난 4백여 단어 지적했다. 또 이 가운데 오류가 심각한 2백57개의 단어에 대해 수정 대안문을 마련하고 7~8월 두 달간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보고서를 발간했다. 오종욱 기자

## "동국학원 이사후보 재선출" 요구

청림회·일여회 성명

조계종 중앙종회 내 종책연구모임 청림회와 일여회는 8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42회 임시중앙총회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총회의원 탄우스님 사퇴 △총무원의 과학적 인사행정 시정 △동국학원 이사후보 사퇴 후 재선출을 요구했다.

또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 건립과 관련해 "수천억원대의 예산이 소요되는 병원 건립을 무작정 추진하는 것은 종단의 물론 한국불교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며 '동국학원 불교병원 조사특별위원회'

를 구성해 병원 건립의 타당성을 조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일여회 회장 성관, 간사 장적, 청림회 회장 세영, 간사 율우스님과 정병, 여연스님이 참석했다.

두 모임은 성명서에서 "141회 임시총회에 불참한 이유는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할 총회가 소수세력에 의해 이권결탁의 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다"며 "142회 총회를 맞이하여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종도들에게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바라는 우리의 뜻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 현대만평

청소년포교

요즘엔 테크노로 통한다지?

737-8881

## 대한불교 무량종 임원 공고

원로위원장	봉불사	파안은관
총회위원장	철보정사	혜지령
총무원장	은암정사	만오
총무원상임부원장	무량정사	무운범
(감찰위원장)	옹주사	고대성
경북대주총무원장겸	상락암	도안
교육위원장	팔보사	지오
총책자문위원	성주사	김동복(청산)
총책자문위원	건불사	
수원지원장	홍불사	
인천지원장	길손사	
김포지원장	당포사	
경남총무원장	보리정사	
상주국장		

충분산 지리산 철보정사 / 총림 부산 은암정사 / 교육원 총주 성주사

### 대한불교 무량종 총무원 (무량정사)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6-2  
전화 02)3216-1600

---

## 탈종공고

하기 승려는 귀 종단의 중지종풍에 따르지 못하기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p><b>대한불교 총화총귀하</b></p> <p>사찰명: 팔보사 성명: 장준석(대법) 주소: 서울 강북구 수유4동 563-34</p> <p>사찰명: 성주사 성명: 이철우(고담) 주소: 충북 충주시 양성면 능암리 572</p> <p>사찰명: 상락암 성명: 서경일(무운) 주소: 서울 동작구 흑석2동 279-7호</p> <p>사찰명: 은암정사 성명: 양영수(지은) 주소: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14-7</p> <p>사찰명: 철보정사 성명: 정동식(혜안) 주소: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p> <p>사찰명: 철보정사 성명: 박보덕, 황보현, 조준기 주소: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p> <p><b>대한불교 관음종 귀하</b></p> <p>사찰명: 길손사 성명: 구자광(도안) 주소: 인천시 서구 마전동 133-1</p>	<p>사찰명: 용주사 성명: 배태웅(만오), 이혁구(수도)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50-1</p> <p>사찰명: 보리정사 성명: 채옥석 주소: 경북 상주시 연원동 586</p> <p>사찰명: 당포사 성명: 김도철(지암) 주소: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533</p> <p>사찰명: 은암정사 성명: 김성태(지공) 주소: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14-7</p> <p>사찰명: 삼성암 성명: 양춘자 주소: 서울 은평구 녹번동 5-9</p> <p>사찰명: 무량사 성명: 지유천(인덕) 주소: 전남 장흥군 장평면 장동리</p> <p>사찰명: 홍불사 성명: 양재홍(성안) 주소: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01-13</p>
--	--